제 1 교시

국어 영역

현시

〈춘설(정지용) - 수능특강 9p 관련〉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03고3서울시변형〉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짓
* 옹숭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이고
* 핫옷 : 솜을 두어 지은 옷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가지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다)

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
ⓐ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솔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붓거려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뫼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쌀쌀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주락하여 :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북 : 베틀에서 날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연류간(烟柳間) :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현포(玄圃) : 선경과 같이 좋은 곳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시어를 반복하여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다)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5.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u>않은</u> 것은?

문을 여니 갑자기 먼 산에 눈 내린 것이 보인다.	- ①	· 문을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때는 이른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 ②	·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		
그러고 보니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	- ③	·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
↓		
봄을 맞아 생명이 생동하는 것이 느껴진다.	- ④	·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춘설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진다.	- ⑤	·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16.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는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③ ⓒ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8.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③ ㉠은 계절의 변화와 연관된 일상적 의미가, ㉡은 관념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춘설(정지용) <10-03 고3 서울시변형>

[13-18]

13. [출제 의도] 작품 간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가)는 춘설의 모습과 미나리, 물고기 등을 시각적인 심상과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다양한 소재를 시각적·후각적으로 제시하여 봄날을 즐기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나) 모두 애상적 정서가 아니다. ③ (나)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는 계절적 배경이 봄이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다)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장소를 이동하며 자연을 감상하고 있다. ⑤ 수미상관은 세 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14. [출제 의도] 제재의 시적 기능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가)의 화자는 갑자기 내린 춘설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각종 자연물을 완상하며 봄날의 흥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물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어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시의 내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 ③에 제시된 '이미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는 춘설을 보고 느낀 감각으로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은 시의 상황으로 '문을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구절을 통해 문을 열어 보니 먼 산에 갑자기 눈이 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우수절 들어 /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 움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에서 봄을 맞아 자연이 생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춘설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은 마지막 연에 드러난다.

16. [출제 의도] 다양한 관점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이 시는 전반부에서 '않는다', '없다' 등의 부정적 서술어를 반복하여 외면적으로 '새'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는 후반부에서 내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거센 바람을 거슬러 가는 존재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제목의 '출가'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상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으며, '자취', '체중', '자리', '체취'는 점층적인 관계도 아니다.

17.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다)에 산행을 다니며 느끼는 흥겨운 심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의 표현은 흥겨운 심정의 감정 이입이라기보다는 자연을 묘사하는 관습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세로로 길게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꾀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베틀에서 실 사이로 북이 오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18. [출제 의도] 상징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 ㉠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연물의 의미이며, ㉡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 등 새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춘설(정지용) - 수능특강 9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 -

(나)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교로이 타관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의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며칠 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이고 바람이 푹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이나 밤사이 날새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으레 다음날은 대한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 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나리고 땅이 눅눅하니 밈*이 돌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고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다. 나는 실상 해보다는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가는 절기며 들고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히었는가.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번 입춘이 먼 산 너머서 강 너머서 오는 때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 우리 고향서 제일가는 부자가 요즈음 저 혼자 밤에 남폿불 아래서 술을 먹다가 남포가 터지면서 불이 옷에 닿아 그만 타 죽었다 했다.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술을 먹되 누구와 같이 동무해 먹지 않았고 전등이나 켤 것이지 남포를 켰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시비가 이야기에 덧붙어 왔다.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고향에서 한때는 남의 셋방살이를 하며 좁쌀도 되술로 말아먹고 지나던 사람이 금광에 돈을 모으고 얼마 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들였다는 이야긴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분풀이 같은 기운이 말끝에 채이었다.

오는 입춘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 시골서는 요즈음 누구나 다들 입이 삐치거나 솜씨를 써 가며 이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돈과 목숨과 생활과 경우와 운수 같은 것에 대해서 컴컴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이 때로는 춥게 때로는 더웁게 그들의 마음의 바람벽에 바람결같이 부딪치고 지나가는 즈음에 입춘이 마을 앞벌에 마을 어귀에 마을 안에 마을의 대문간들에 온 것이라고.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이 넘으면 양지 바른 둔덕에는 머리 칼풀의 속움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 친했던 창애와 썰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 멧새,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 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 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썰매도 노루도 멧새도 다 가 버린 것이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 무휴(空日無休)의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부(敗負)의 읍울(悒鬱)*을 느끼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 백석, 「입춘」 -

* 밈 : 아지랑이
* 패부(敗負)의 읍울(悒鬱) : 패배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함.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정지용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대상을 통해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했다. 정지용은 「춘설」 같은 후기 시에서 산수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시를 주로 창작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산수시가 동양화, 그중에서도 산수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인이 산수 자연을 시의 주요 소재를 삼은 것은 자연 속에서 형이상적 이념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경우라면 산수가 매우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① 화자가 '문'을 열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 속에서 형이상학적인 이념을 추구하려는 시인의 의도와 관련이 깊겠군.
② 화자가 '우수절'의 '초하루'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산수 자연을 산수화처럼 형상화하기 위함이겠군.
③ 화자가 '멧부리'와 '이마받이'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대상을 통해 어떠한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속내라 할 수 있겠군.
④ 화자가 '흰 옷고름'이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하고 '양'이 '꿈 같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시인이 바라는 이념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⑤ 화자가 '미나리'의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과 '고기'의 '입'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글쓴이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② ㉠은 봄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은 봄에 대한 글쓴이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③ ㉠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은 글쓴이를 둘러싼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④ ㉠은 겨울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은 겨울에 대한 어른이 된 '나'의 아쉬움을 드러낸다.
⑤ ㉠은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감회를, ㉡은 겨울을 떠나보내는 글쓴이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나'는 외지에서 입춘 절기를 맞이하면서 평소 절기와 생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나'는 입춘에 전해 들은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절기처럼 사람의 처지와 생각 역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나'는 입춘과 관련하여 과거의 소년 시절과 어른이 된 현재를 대비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때 유년 시절의 '나'는 고향에서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연을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성인이 된 현재의 '나'는 도회지에서 겨울의 흥취도 없이 무감각해져서 '공일 무휴의 오피스'에 출근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① '소년'이 '창애와 썰매와 발구'와 '한겨울 내내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나'가 유년 시절에 고향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지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소년'이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 버리는 것이라'며 슬퍼하던 것은 '나'가 유년 시절에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③ '나'가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절기와 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며 입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④ '나'가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며 '고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처럼 인간 생활도 굴곡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겠군.
⑤ '나'가 '패부의 읍울'을 느껴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나'가 시골에서의 삶이 아닌 도회지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춘설(정지용)

1.

③ (가) '흰 옷고름 절로 / 향기롭어라'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옷고름의 모양이 마치 고운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어 봄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 첫 번째 단락에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영탄은 있으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에 색채 대비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가)는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④ 모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② <보기>에서 정지용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대상에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자연 속에서 형이상학적 이념을 추구하고자 할 경우 '산'이 보다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정지용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대상에 어떤 정신이나 이념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였다는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④ 4~5연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봄기운을 서술하고 있으며, <보기>의 '자연 속에서 형이상학적 이념을 추구하고자'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⑤ 6연에서 언급하는 '미나리'와 '고기'의 모습은 봄에 피어나는 생동감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② ㉠ 겨울 옷을 벗고 봄기운을 느끼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 겨울이 가는 것이 슬프지도 않고, 봄이 오는 것이 기쁘지도 않은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 '달관적 태도'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엔 그러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 화자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 겨울이 지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으며, ㉡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④ ㉠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느껴지나 ㉡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에 대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 하는 화자의 심정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⑤ ㉠ '설어라'는 '낯설다', '서럽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서럽다'의 경우 이른 봄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으나 '서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봄을 맞이하는 다양한 감회를 드러낸다 볼 수 있겠으나, ㉡ 겨울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4.

⑤ '나'가 '패부의 읍울'을 느껴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도회지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풍성하게 맞아히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쓸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춘설(정지용), 등꽃 아래서(송수권) - 수능특강 9p, 10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나)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핫옷: 솜옷.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가)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상승과 하강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정서적인 동요를 겪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등나무'의 '밑뿌리'가 '절제 없이 뻗어 있'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는 등나무가 서로 '꼬여' 있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나)는 '문 열자 선뜻'하며 놀라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눈 덮인 산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는 '눈 덮인 멧부리'를 바라보며 '새삼스레'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우수에 내린 눈과 그 눈이 쌓인 산의 모습을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image)는 신체적인 지각 작용, 즉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시적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미지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대상이나 대상의 추상적인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그와 관련된 현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미지는 독자의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면서 독자에게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① ㉠은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바람이 불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② ㉡은 시각적 대상을 청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겠군.
③ ㉢은 이미지의 전이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화자 자신이 느낀 계절적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군.
④ ㉣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적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군.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독자에게 겨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춘설(정지용) / 등꽃 아래서(송수권)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한다.

④ (가)는 '등나무 줄기-등꽃 송이'로 시선을 이동하며 조화를 이루는 등나무의 모습을, (나)는 '흰 눈이 내린 먼 산-파릇한 미나리 새순, 오물거리는 고기 입'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봄의 계절적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는 '가닥가닥', '주걱주걱'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에는 어순의 도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진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대립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한다.

② (가)에서 등나무의 '밑뿌리'가 제멋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 즉 '너'와 '내'가 서로 다른 터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화자는 등나무 줄기를 보면서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를 '밑뿌리'의 모습에서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화자의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이 일렁이는 양상이므로, 화자가 정서적인 동요를 겪고 있음을 '불빛'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등나무 줄기가 '가다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모습을 통해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④ '선뜻!'은 봄을 기다리고 있던 화자가 문을 열어 본 후 갑작스럽게 차가움을 느껴 놀란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새삼스레'는 겨우내 눈 덮인 먼 산을 보았지만, 우수절이 되어서도 눈 내린 산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고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탄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겨울에 대한 독자의 부정적인 인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불어 등꽃 송이가 흔들리는 모습을 구름이 움직이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② '파란과 옥빛 구슬'과 같은 등꽃 송이의 아름다움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함으로써 독자에게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은 눈 덮인 먼 산의 차가움이 이마에 닿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으로 시각의 촉각화, 즉 공감각적 표현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줄이면서 독자에게 자신의 계절적 체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④ ㉣은 봄바람에 날리는 '흰 옷고름'을 통해 받은 인상을 마치 화자 자신이 그 향기를 맡은 듯이 '향기로워라.'라고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는 봄이라는 계절을 느끼고 있는 자신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